장마 속 폭염 연일 '찜통'

순천 34도 치솟아…올 첫 폭염주의보
주말·휴일엔 장마전선 북상 비 예보

7일 광주·전남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3일째 계속됐다. 폭염은 주중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망된다.

◇광주·전남 첫 폭염주의보=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곡성·구례·장성·화순·보성·광양·순천 등 전남지역 일부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순천의 낮 최고기온은 34.1도까지 치솟았으며 ▲곡성 32.1도 ▲화순 32도 ▲광양 31.9도 ▲구례 31.5도 ▲장성 31.4도 ▲광주 31.2도 ▲보성 30.7도 등 전남 지역 대부분이 30도를 넘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시달렸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내린 이날 오전 기온이 오르는 속도상 광주·전남 기온이 33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5000m 상공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31도 내외에 그쳤다.

하지만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10일 이전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폭염주의보는 계속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와 함께 연일 불쾌지수도 높아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광주 낮 최고기온이 33.1도·불쾌지수 80.4를 기록했으며, 5일 최고기온은 30.1도·불쾌지수 81.1을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 변덕스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호우와 무더위가 뒤섞이면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8~33도까지 올라 덥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9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더위 기승 이유는=장마기간에는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의 반복이 이어지며, 장마전선이 소강상태에 들면 무더워진다.

여름철이면 지구 자전축에 따라 태양 고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아지면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다.

◇주말엔 비=주말과 휴일인 10일, 11일 제주도 남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맛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무더위가 일시적으로 해소되겠지만 다음주 중반에는 다시 구름이 많은 가운데 30도를 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장마는 6월18일에 시작됐으며 보통 한 달가량 지속되나, 지난해에는 6월21일부터 장마가 시작돼 8월4일까지 무려 44일째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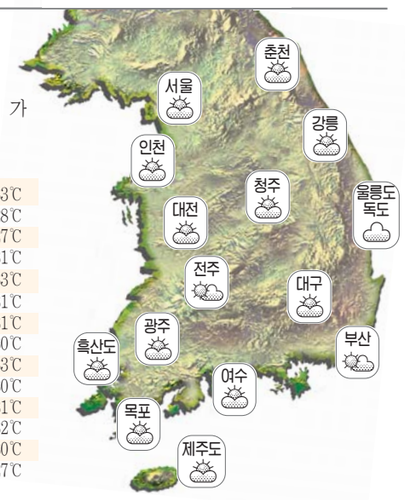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5시 25분 해짐 19시 50분 / 달뜸 01시 36분 달짐 16시 26분

뜨거운 태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 주	구름많음	22/33℃
목 포	구름많음	21/28℃
여 수	구름많음	22/27℃
완 도	구름조금	21/31℃
구 례	구름많음	21/33℃
해 남	구름조금	20/31℃
장 흥	구름조금	20/31℃
고 흥	구름많음	20/30℃
순 천	구름많음	22/33℃
영 광	구름많음	21/30℃
진 도	구름조금	20/31℃
전 주	구름점차많아짐	21/32℃
남 원	구름점차많아짐	20/30℃
흑산도	구름많음	20/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먼바다	북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높음	경고	높음

	밀물	썰물
목포	10:34 23:48	04:33 16:20
여수	05:43 18:44	11:55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날 씨						
최저/최고	23/32	23/28	23/28	23/29	23/30	23/29

물 많이 마시고 외출 땐 모자 쓰세요

폭염 대비 건강관리 요령

소방방재청은 7일 폭염에 대비한 건강 및 안전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 때는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볕을 피해야 한다.

또 물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많은 양을 마시고, 식사는 가볍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 탈수를 유발하는 알코올 음료는 피하고, 옷은 느슨하게 가능한 피부를 많이 가리게 입는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공사장·제철소 용광로 등 산업현장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을 피하고, 하루에 최소 2시간 냉방이 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지내는 가족·친구·이웃도 살펴야 한다. 냉방기를 사용할 때는 온도 차이를 5도 내외로 유지해야 냉방병을 피할 수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고혈압·당뇨 운동교실 7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가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운동교실'에서 참가 주민들이 강사의 지도 아래 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탄소은행 추진 평가
북구청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는 광주시가 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 탄소은행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4400만원의 탄소은행 우수 아파트 지원사업비를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탄소은행에 1만3400세대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이산화탄소 2773t의 절감효과를 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평가항목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추진한 탄소은행 참여율·탄소그린카드 발급률·온실가스 감축률 등이었다. 탄소은행제는 2007년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방사선 조사 쥐치포 회수
식약청 "구매 제품 반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서는 안되는 방사선조사를 한 킴스클럽마트 자사브랜드(PB) 제품 '조미쥐치포'를 회수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식품은 베트남업체(HAI NAM CO. LTD)가 제조하고 (주)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와 '조미왕쥐치포'로 각각 유통기한이 2011년 2월20일과 같은해 6월30일로 킴스클럽마트에 유통됐다.

또 다른 베트남업체(HUY SON CO. LTD)가 만들고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60% 타지 출신

'지역인재 육성' 설립 취지 무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올해 입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타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중 서울지역 출신은 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를 비롯한 지방의 로스쿨 입학생 중 평균 64.4%가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 로스쿨이 지역 인재 발굴에 주력하기보다는 학력이 뛰어난 수도권 학생을 선호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사회의 법조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지방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전남대, 강원대 등 10개 로스쿨의 2010학년도 입학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학정원 728명 중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이 469명(64.4%)에 달했다. 출신지는 졸업한 고등학교 기준이다.

전남대의 경우는 120명 정원에 지역 출신은 49명에 불과한 반면 타 지역은 71명으로 59.2%에 달했으며, 서울지역 출신은 40명으로 33%였다.

특히 원광대(정원 60명)는 무려 90%(54명)가 타지 출신이었으며, 인하대(50명 중 88%)·아주대(50명 중 84%)도 타지 학생 비율이 80%를 넘었다. 타지 출신이 절반 이하인 곳은 120명 중 42명으로 35%인 부산대가 유일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과부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위법"

전북도교육청에 공문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3~14일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 은 전북도교육청에 '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는 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어 전북 장수중 판례(2009년 전주지법)를 인용해 "학생 및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교원은 이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BS 여름방학 기간
10주 완성 수능특강

EBS는 "여름방학 기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출제 경향에 맞춘 핵심 개념과 유형을 단기에 익힐 수 있는 '10주 완성 수능특강'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지난 3월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EBS 교재와 수능시험 70% 연계방안'에 따라 연계되는 교재 가운데 출간되지 않았던 두 가지 시리즈 중 하나라고 EBS는 설명했다.

EBS는 이번 강좌에서 방학 동안 마지막 개념 정리와 문제 유형 적응, 심화 개념까지 추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총 59강좌(955편)를 제공하며, 실제로 한 학생이 학습할 분량은 선택 영역을 고려하면 5강좌 80편 내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